

힘과 의리 느껴지게

2017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2차 결과

돈 숭배 말고 사람존중

4.20(목) 안산지부에서 17년 2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은 8개 사업장 12명이 참가했다. 계약전기는 회사 일정으로, 현대케피코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앞둔 준비로 교섭대표가 참가하지 못했다.

정규전 지부장은 “4월엔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고 사업장 산재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갑을오토텍 노조탄압으로 또 노동자가 자결했다. 사람존중보다 돈만 우선하는 사회의 단면이 이렇게 드러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는데 안타깝다. 경기지역 노사가 노력해 변화해가자.”며 교섭을 열었다. 이어 지부 요구안을 설명했다.

2017 집단교섭 요구안

1. 임금은 기본급 154,883원(정가·호봉승급분제외)인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정액으로 똑같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정올로 하거나 각자 알아서하면 회사크기, 재벌그룹 안팎, 노동조합의 나이차에 따라 높은 쪽이 늘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요구에도 단결불패 정신이 있다.

2.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는, 조합원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회사가 좀 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등에 출두하거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보궐선거를 할 때 등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요구다.

3. 산재은폐 방지·재해자 보호 요구는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가 적극 협조하라는 요구다.

앞으로 교섭은 **4월 27일(목) 14시 계약전기**를 시작으로 매주 집단교섭 사업장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계약전기 천안공장에서 교섭을 열어, 먼 거리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려운 계약천안 조합원들을 만났으면 한다고 사측에 제안했다. 노사 간 실무협의 를 거쳐 차기 교섭 장소를 확정한다.

올 해엔 이걸 꼭!

집단교섭 후엔 각 사업장의 현안과 올 해 목표를 공유했다.

대원안산지회는 공장확장에 관해 회사와 꾸준히 논의 중이다. 부지를 넓혀 안산-시화에서 각각 일하는 조합원들이 뭉치고 노동환경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젊은 간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 작은 것 하나도 조합원과 같이하는 투쟁으로 쟁취해보고 싶다고 한다.

대원평택지회는 산재가 많이 발생해 현장개선과 더불어 조합원의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계획을 고민 중이다. 대원안산지회와 규칙을 통일시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계약전기지회도 투쟁보험, 투쟁기금과 관련한 규칙개정을 논의 중이다.

두원정공지회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정상화를 비롯해 앞으로 지회운동의 전망수립을 위한 논의와 소통에 집중한다.

에스제이엠지회는 ‘주인노동’을 실험 중이다. 물량변동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일터에서 생산과 노동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고민과 도전을 계속한다.

우창정기지회는 조직확대·강화, 큰

골격계 대책 마련을 목표로 걸었다. 비조합원과 함께 하는 문제는 지회가 항상 고민하는 일상적·장기적 과제다.

주연테크지회는 주연그룹으로의 재편 등 새 경영진의 사업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작년 세 번의 경영진 교체에서 보여준 가능성, 작은 지회지만 그 존재만으로 다른 노동자의 권리까지 지키는 역할을 계속하고자 한다.

현대케피코지회는 5월 8일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한다. 임금, 생산, 후생복지 등 교대제 변화에 따른 모든 변화를 꼼꼼하게 대응하는 분과회의를 바

쁘게 진행해 왔다. 주간연속2교대를 최초로 제안했던 자부심만큼, 빨리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올 해 목표다.

신한발브분회는 작년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오랫동안 불안정한 경영상태로 미뤄왔던 노동시간 단축을 조금씩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화성지역 무권리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입 선전전도 열심이다. 올 해 조합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중 큰 행사를 준비한다.

신한 뿐 아니라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작으로 설립된 다수 사업장도 함께 30주년 생일을 맞는다. “신한 30주년에 전 조합원이 같이 축하하러 가겠다.”고 한 지회도 있어 웃음이 터졌다.

새 식구들 잘 지내오

계속되는 신생노조 등장으로 벌써 ‘중견’사업장 소리 듣는 새식구들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말레동현화성지회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 주 화성과 울산을 오가며

교섭 중이다. 작년 단협에서 조합활동 시간 교육시간 확대한 걸 바탕으로 올해도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19일 상견례를 치렀다. 작년까지는 타임오프를 활용해 교섭에 참가했던 교섭위원들의 유급활동시간을 대폭 늘리는 교섭원칙을 합의했다. 3년 사이 노동조합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져가는 중이다.

대창지회는 14일 상견례에서 노사가 반 년 만에 다시 만났다. 회사는 경영실적 등을 이유로 교섭을 2주에 한번 하자고 한다. 긴장이 여전하다. 조합원들은 상견례 당일 주야 점심시간에 결의대회를 열어 건재함을 보였다. 4월 내내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월말엔 조합원 의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지큐피앤씨지회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 교섭이 진행됐다. 하고 싶은 조합활동이 많은데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다.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삼화지회는 일찍 임단협을 마치고, 매주 간부회의를 하며 조합원 교육,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월부터는 생산물량이 많아 일도 조합안정화를 위한 활동도 무척 바쁘다.

힘과 의리 느껴지게

최근 3년 사이 신생노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부 조직력의 중추가 되는 집단교섭에 결합하는 것은 신생노조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다.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올 해 늘 그렇듯 주목할 위험요소들이 있지만, 큰 투쟁현안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올 해 지부 집단교섭이 신생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경기 지부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느껴지는 교섭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지부 핵심사업장들이 신생사업장에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경기지부의 힘과 의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어머 또 새식구가!

또 왔다. 4월, 삼성웰스토리지회가 운영위 승인으로 지부 새식구가 됐다. 이들은 삼성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소속으로 회사식당, 푸드코너 등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이다. 웰스토리 노동자들은 주말근무를 하고도 평일임금을 받고, 점심시간에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무거운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다루지만 안전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다치면 막막했다. 그래서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만들었다. 2013년 1월 삼성지회가 금속노조경기지부에 가입해 무노조삼성에 파열구를 내고,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서 단체협약을 쟁취하며 대중적 노동조합의 시대를 열었다. 거기에 촛불의 힘이 보태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를 비롯해 삼성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이기고 있다. 삼성에서 노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무노조 삼성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사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삼성 등 4대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를 했다는 것이다. 풍돈으로 나라를 다 주무른 삼성과 재벌들에 맞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삼성에서 권리의 주인이 되고자 나선 노동자들 그 자체다. 무권리 노동자의 권리찾기에 언제나 몰빵으로 화답한 경기지부 조합원의 자부심으로, 삼성웰스토리 새식구들의 든든한 뺨이 되자.